

종합

오늘 김정일 영결식... 내일 대규모 추도대회

경찰 '수사권 조정안' 통과 반발

국무회의 원안대로... 조현오 대응 논의

김정은 유혼통치로 '홀로서기' 본격화

북한의 절대권력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이 28일 오전 평양금수산기념궁전에서 열린다.

영결식은 오전 10시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영결보고를 시작으로 의장대 사열 등의 순으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된다. 김 위원장의 대형 영정을 앞세운 운구행렬은 평양시내를 돌며 주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한다.

영결식이 끝나면 김 위원장의 시신은 금수산기념궁전에 부친인 김일성 주석의 시신과 함께 안치된다.

레닌교 연구소 소속의 블라디슬라프 카팔체프 교수가 이끄는 러시아의 시신보존 전문가팀이 25일 평양으로 출발해 김 위원장의 시신도 방부처리를 거쳐 영구보존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영결식 다음날인 29일 오전 10시 김일성광장에서 평양시민 10만여명을 모아 놓고 중앙추도대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

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한동안 김 위원장의 유혼 통치로 자신의 권력기반을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김 부위원장의 '홀로서기'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4일 '우리의 최고사령관'이라는 정론에서 "김정은 동지를 우리의 최고사령관으로, 우리의 장군으로 높이 부르며 선군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것"이라고 밝히 조만간 김 부위원장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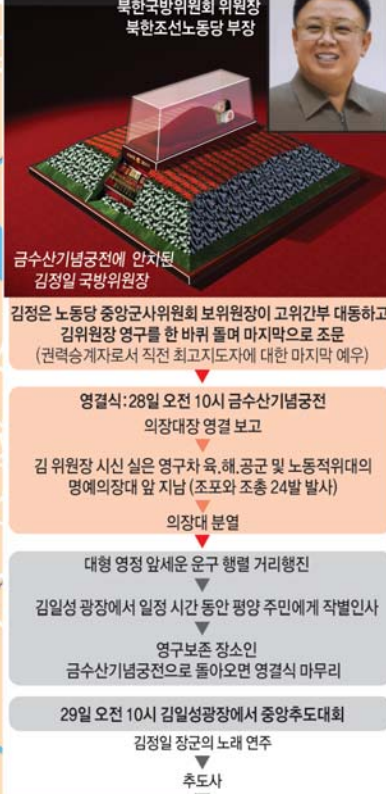
또 북한 매체들은 최근 김 부위원장을 '당 중앙위원회 수반'으로 잇따라 언급해 김 부위원장의 당 총비서 추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영결식과 중앙추도대회를 모두 마치면 북미접촉에 나서는 등 그동안 미뤄졌던 국가적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미리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영결식



김정일 (1942.2.16~2011.12.17) 북한국방위원회위원장 북한조선노동당 부장



주석단



김정은(28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65·고교) 당 정치국 위원, 김경남(6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최정림(81) 내각 총리, 리영호(69) 후조위원장, 장성택(65·고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모태사이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을 참배하며 또 다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내사(內査)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해 경찰의 집단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김·경 수사권 조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사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지회

견의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3일 강제조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입법에도 기한이 지난 뒤에도 검경간 조율이 실패하자 지난 22일 원안 그대로 차관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반발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및 주요 간부들은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날 회의 결과를 담아 여정민 형태로 10만 경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어선 단속 중 순직한 군산해경 고(故) 정갑수 경무관에게 흉조근정훈장을 추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중 한반도 평화 '전략적 소통' 강화

어제 서울서 고위급 전략대화

한중 양국은 2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간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박석환 외교통상부 1차관과 장즈권(張志軍) 외교부 상무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4차 고위급 전략대화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전략대화는 김정일 사망 이후 한중간 최고위급 협의인 뿐 아니라, 향후 한반도 정세운용 전반에 대해 양국이 공통의 상황인식과 대응 기초를 조율해내는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회담 시작에 앞서 박 차관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깊다"면서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양국이 공동의 전략목표 하에 긴밀하고 신속한 소통을 해나가길 바란다"며 "양국은 수교 19주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

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 부장은 "양국은 수교 20주년 동안 공동의 노력을 통해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큰 성과를 거뒀고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갔다"면서 "동시에 지역 평화와 안정을 모색해왔다"고 밝혔다.

장 부장은 이어 "양국관계는 이제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있다"면서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는 아·태 정세 속에서 양국이 제때 전략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정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데 공통인식을 확인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과정에서 우리 해경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에 대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다음달 초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연합뉴스

장송곡은 '빨치산 추도가'

부리는 러 '스텐카 라친'

북한이 지난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공식 발표한 직후부터 27일 현재까지 북한 방송매체를 통해 내보내는 장송곡은 '빨치산 추도가'를 편곡한 곡이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의 군악대가 이 곡을 연주하는 장면이 조선중앙TV를 통해 수시로 방영되고 있다.

탈북자들이 따르면 이 곡의 원곡은 북한에서 유명한 '빨치산 추도가'인데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에 곡조가 장송곡 형으로 편곡됐다. 이 곡은 북한이 국가적 행사에서 사용하는 18개 주요 예식곡 가운데 하나다.

북한은 주요 예식곡 중 '빨치산 추도가'와

'환영곡' '영집곡'은 각각 2가지 버전으로, '김일성 장군의 노래'는 3가지 버전으로 편곡해 각 행사의 성격에 따라 달리 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빨치산 추도가'는 2007년 2월 최광 전 인민무력부장 사망 10주기, 2008년 4월 김춘추 전 국가 부주석 20주기, 지난 1월 김책 전 부수상 60주기 중앙추모회 등에서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곡으로 연주됐다. 이 곡은 일제시대 독립군이 불렀던 '독립군 추모가'와 거의 똑같다. 가사 가운데 '독립군'을 '혁명군'으로 바꾸면 '빨치산 추도가'가 된다.

'독립군 추모가'는 17세기 러시아 민요 '스텐카 라친'을 변안한 것으로, 한반도에서는 20세기 초 항일투쟁을 벌인 독립군들이 즐겨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주민 결속 끌어내고 호성 부각

김정은 짝은 눈물 왜?

옛된 20대 새 지도자의 눈물. 조선중앙TV를 통해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울먹이는 모습이 자주 비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이후 무려 네 차례나 비통함을 찾은 김 부위원장은 자주 눈물을 흘리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다.

일단 슬픔에 잠긴 그의 모습에서는 아버지를 잃은 자식의 비통함이 느껴진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의 슬픔을 단순히 부친을 잃은 애痛함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

부친이기 이전에 자신의 권력 장악에 절대적인 힘을 실어줄 절대 권력자를 잃었다는 점에서.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된 지 불과 3년 만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그에게는 북한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도 커 보인다.

김 부위원장의 속내야 어떻든 그의 애痛한 눈물을 북한TV에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는 것은 주민 결속을 노리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주민들에게 '영도자를 잃은 슬픔'을 그대로 전해 김 부위원장의 호성을 부각하고, 이를 통해 김 부위원장에 대한 주민 결속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in Naju, featuring 'Naju Hyeon-dong Investment Specialist' and 'Solom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featuring 'Dae-wa Real Estate Consulting' and 'Daegu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featuring 'Dongmyeong Real Estate' and 'Daeje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featuring 'Daegu Real Estate' and 'Daeje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featuring 'Daejeon Real Estate' and 'Daejeon Real Estate'.